東亞日報
夕刊
七月廿七日(土)

伊和協手續을 에國反對

聯盟條約 第十五條適用을 에國서强硬主張

英佛大使等은經濟上讓步로 伊에問題解決圖謀

【아디스아베바二十六日發聯合】 伊國政府는 二十五日 새로 通牒을 提出, 和協仲裁手續을 主張하얏는데 에國政府는 右要請을 拒否하고 어디까지든지 規約第十五條에基하야 聯盟理事會에서 紛爭의全面的處理를 하기로決定하얏다 헤루이外相은 二十六日 右方針을 言明하야 如左히言明하얏다 [illegible]

에國政府는 和協委員會의 續行事務를拒否하얏다 和協委員會와 再開案에對하야는 [illegible] 에치오피아政府는 이제도 聯盟內에서 紛爭處理가되리라고 確信하고 잇다

【로마二十六日發】 當地官邊에서 [illegible] 英佛大使는 伊太利政府에對하야 에치오피아에對한 廣範한 經濟的利權을認定하드라도 政治的併合은 保留하라고 [illegible] 一方 에國方面에서 英政府에 [illegible] 伊國側도 右[illegible]에 依하야 充分 [illegible] 【寫眞上은 에國皇帝 下는 伊首相】

特別理事會招集

聯盟理事國에正式通達

卅一日或은來月一日開催

【제네바二十六日發】 아비시니아問題에關한 聯盟事務總長은 今日聯盟理事國全部에對하야 來三十一日或은八月一日부터 特別理事會를招集하다고 通達하얏다

【제네바二十六日發聯合】 聯盟事務總長은 二十六日 아브놀總長의名義로써 特別理事會에關한 招請을 理事國政府에 通達하얏다 招請狀은如左

一、五月二十五日의 理事會決議에基하야 來七月三十一日 又는 八月一日午後五時부터 理事會를開催, 伊에兩國紛爭處理에對하야 協議를 한다

一、正確한 日字는 理事國政府의 希望에 依하야 決定한다

二日間續行

【제네바廿六日發聯合】 聯盟事務局에서는 卄六日伊、에紛爭에關한 特別理事會는 七月卅一日乃至八月一日로決定될것을豫示하얏다

伊代表決定

【로마二十六日發聯合】 伊太利政府는 오는 聯盟理事會에 代表로 알로이지를 出席시키기로決定하얏다

英國도出席

【倫敦二十六日發】 英國政府는 二十六日 아브놀總長에게對하야 伊에紛爭에關한 聯盟理事會出席을 承諾하겟다고 回答을發하엿다

英國政府에서 局面打開策協議

【倫敦二十六日發聯合】 聯盟理事會와 開會를압두고 英國政府는 [illegible]

東阿에進軍하는伊太利의陸軍 聯盟及英米와 佛等도不拘하고 自主的行動을 敢行하고잇는 伊太利는 大軍을 伊領소말리렌드에서 보사미스시오로 出進하고잇는바 圖는兵과 같이 [illegible] 軍隊들은 [illegible]

米國의中立政策을 루大統領宣明

伊에紛爭에不干涉?

【워싱톤二十六日發聯合】 루스벨트大統領은 二十六日 新聞記者團과의 定例會見에서 米國政府의 對歐平和政策을 宣明, 伊에兩國紛爭에關한 方針을 說하얏다 世界平和維持에 對하야 如何히 對策을 講究할것이 나온것에 對하야 루大統領은 말하되

平和維持策은 大關聯로서 非常時에는 [illegible] 되나 오시 [illegible] 米國政府는 平和維持策에 對하야 二方面이 잇는것이다

第一은 善隣政策이며 第二는中立政策이다 第二의方針에 基하야 米國政府는 自國에 關係업는 各特定의事件에 對하야 局外中立을 保持하는것이다

다시 記者團은 第二의 中立政策을 에國問題를 包含하겟지요 하는 質問을 提出하엿는데 루大統領은 即席에서 肯定하야 가로되

勿論 에國問題에 關하여서도 中立政策이 適用된다 그러나 이경우에는 多少例外的性質을 띄어 米國政府의 中立政策을堅持하는 同時에 今般的으로 世界平和와 問題도 考慮할것이다 또參謀總長 [illegible] 로되어 마닐라로 赴任한다는 報道가 [illegible] 하야 大統領은 [illegible] 比律賓政府이 [illegible] 任을 希望하고잇는것은 事實이다 [illegible] 任期는 [illegible] 하야 [illegible] 되었다 [illegible]

米財政委員長談 財政改革案과

【워싱톤二十五日發】 米國下院財政委員會는 目下 財政改革案의 作成을 急히하고잇는데 도 長은 二十五日 如左히말하엿다

루스벨트 大統領은 財政改革에 依하야 三億弗의 增收를 求하고 잇으나 民主黨委員은 二億弗의 增收를 關하기로 意見이 一致하엿다 그리고 法人所得稅의 累進稅率을 決定하는것도 原則으로는 承認되엇으나 累進率은 大統領의要求와같이 大幅이 아니고 一%式으로 될것이다

큰레이 統制强化案 米兩院協議會附議

【워싱톤二十六日發】 米國上院은 二十六日 記錄投票를 行하지안코 政府의 [illegible]統制强化案을 可決, 同法案을兩院協議會에 부치기로되엇다

米、中立的軍需品의 供給法案否決 代案을追後로提出?

【워싱톤二十六日發】 米國務長官은 軍需品委員會의 作成한中立的軍需品供給法案을 支持치 안코 反對하다고 廿六日上院外交委員會에 通告하엿다 그理由는同案이 너머도明確하게 軍需品[illegible]

갈다貨擁護 誓約 和코라인首相

【헤이구二十六日發】 코라인首相은 勿論이나 女皇께 對하야 後繼內閣成立까지는 모든 手段을 다하야 갈다貨 擁護에努力할것을 誓約하엿다

'打倒무首相'運動

印度全土에熾烈?

무氏의有色人種侮辱言辭에 깐디氏도매우激昂

【뉴욕카타卄六日發】 伊에紛爭에 關하야 伊國무솔리니首相이 最近 有色人種侮辱的言辭를 한것은 印度三億의 有色民族을激昂시키어 이제 印度全土는 打倒무솔리니 소리가 民衆의間에 이러나서 印度는 伊에紛爭에 超然할수없다는 主張이 提唱되고잇으며 特히 注目할것은 오래동안 沈默을지키고잇든 聖雄깐디氏가 激昂한것인데 깐디氏는 全印度民衆에 呼訴하야 에치오피아를 爲하야 赤十字에 義捐金의 出資를 呼訴하고 印度民衆은 무首相의 壯談을 看過할수는없다 印度는 假使英國治下에 잇다고는 할지라도 聯盟의 一員으로 非武力的으로 他國을援助하는 完全한權利를 가지고잇다고 力說하엿다 如斯히 伊에紛爭은 單純히 兩當事國의 問題에 不止하고 白人對有色人의 問題로까지 發展하려는 形勢를보이어 同紛爭의 擴大는 容易重大視되게되엇다 (寫眞은깐디氏)

에國의愛國熱 愛國婦人聯盟結成

【아디스아베바 二十九日發】 對伊關係惡化와가치 에國의 愛國熱은 非常히 猛烈한데 이번 祖國防衛의 任에 當하려고 愛國婦人聯盟이 結成되엇다 그런데 아디스아베바 政府는 在住外國人의 撤退說이 流布되고잇으므로 奧地의 外人宣敎師의 身邊에는 何等危 [illegible] 險이 업는 그 憂慮에 아다스 아베바에 集中하라고 勸告한 事實은 잇다고 內何處에든지 外人排斥의 傾向 [illegible]

滿洲側서三角洲의 蘇軍備撤回를要求

近間嚴重抗議를發表할터

今後蘇聯態度注目處

【하르빈卄六日發聯合】 滿洲國三角洲에對한 蘇聯邦의 不法軍備施設에 對하야 滿洲國當局은 近間 蘇聯邦側에 嚴重한 抗議를發하야 軍備施設의 撤回를 要求할터이다 【하르빈廿六日發聯合】 蘇聯側은 아무르、우수리兩河의 合流點인 三角洲에 [illegible] 軍備施設의 完備를 急히하야 陣地工事와 完了도 不遠이며 三角洲와 하바로브스크間에 內河線의 陸軍專用道路도 敷設하고잇는것이 判明되엇다 右三角洲는 이미 昨年九月十九日滿洲國外交部에서 蘇聯邦側에對하야 一八六〇年의 北京條約의 規定에依하야 明白히 滿洲國領土인것을 指摘하고 蘇聯邦에게同三角洲에對한 一切의 軍事施設의 撤回를要求한것이다

外鐵輸入協定 正式으로調印 成立

【東京電話】 日本製鐵의 鐵鋼統制問題는 外鐵輸入을 中心으로 紛糾中이든바 二十五日 日本製鐵과 滿洲側과의 間에 外鐵輸入 協定이 成立되어 正式調印되엇다

外交部長은 徐謨氏가代行

【南京廿七日發聯合】 汪精衛氏의 入院療養中 行政院의 事務는 孔祥熙氏를 代理로하고 外交部의 事務는 外交部政務次長 徐謨氏가 代行하게되엇다

宇垣總督 歸任豫定變更

【電通釜山電話】 二十六日夜釜山發歸任할 朝鮮總督의 豫定이變更 [illegible] 及明年度豫算編成其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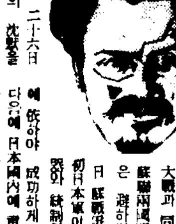
横說竪說

▼京城府의 [illegible] [illegible]

'世界大戰勃發되면 日本은敗北'

一伊에紛爭은前奏曲!一

트로츠키氏豫言



【아르소二十六日發聯合】 볼세비키革命當時 트로츠키氏는 스탈린黨과의 抗爭에 敗北된以來 亡命生活을 繼續하야 前者의 權威로 進出하얏는데 이제 [illegible] 二十六日 오레농안의 沈默을 깨트리고 伊에兩國紛爭에 對하야 所信을 發表, 第二次世界戰爭을 豫言하얏다

一九一二年의 發칸戰爭이 世界戰爭의 前奏曲으로된것과 同樣으로 이번 伊에兩國의 紛爭은 第二次 世界戰爭의 前奏曲이다 一旦 東에에 戰端이 開始되면 全世界는 新勢力 新同盟으로 分裂하야 不出三年에서 新世界大戰의 勃發을 보게될것이다 勿論 世界大戰과 同時에 日本은 蘇聯兩國間의 紛爭은 避하기 어렵다 日蘇戰爭에서는 當初日本軍이 相當한武勇을 보여 [illegible] 다음에 日本國內에 重大한 事態가 發生하야 戰爭은 結局日本의 敗北으로 되게될것이다 (寫眞은 트로츠키氏)

加、自由黨政府의 出現은必至? 關稅도緩和措置

【電通東京電話】 카나다政府는 日本의 通商擁護法發動에 對抗하야 [illegible] 日本品에對하야 去廿二日從價三分之一의附加稅를 課하다는 政府命令을 公布하고 [illegible] 復讐을 確立하고잇는데 廿六日加奈駐加公使로부터 外務省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카나다政府는 一、右附加稅의 [illegible] 八月五日까지 到着하는 貨物에 限定하다 二、從來카나다政府는 課稅價格 決定의 基礎로 公定時勢 四九、八五弗을 採用하고 右에 依하야 實額과 [illegible] 利의 [illegible] 을 [illegible] 今回右公定時勢를 四一、〇五弗로 引下하고 六個月의期限을 限하야 實施하다 第一部에서는 緩和의 態度를 하고 잇는데 目下行하고잇는 州選擧結果 自由黨政府의 出現은 이미必至로 豫測되어 九月의 總選擧後 自由黨政府에依하야 어떠한 緩和措置가 講究하게되지안흘가고 [illegible]

中全會議는 九月二十日頃

【南京二十七日發聯合】 國民政府中央要人의 意向에 依하면 六中全會에는 近間 中央執委에서 正式으로 通知할터인데 大體 開會期日은 來九月二十日頃으로 될것이다 昨年十一月 五中全會開會後 十個月間 內外政治軍事外交財政經濟等에 相當한伸張이 잇엇으므로 是等의報告를 基礎로 各委員의 意見을 綜合하야 國政會全般에 一大刷新을 行할 必要가 잇다고 觀測된다

農省豫算省議 豫算一億三千萬圓

【電通東京電話】 農林省에서는 二十六日午前 午後에 亘하야 農相官邸에서 省議를開催 二十五日來續行하엿는데 十一年度의 豫算에 對하야 審議를行하엿는데 明年度의 新規要求額은 七千萬圓을 決定 基準豫算과 合하야 總要求額은 一億三千萬圓程度로되어 二十七日 이것을 會計課에回付하야 同課에서 整理하엿다 二十九日 다시 豫算省議를開하고 最後的決定을 하게되엇다 그런데 新規要求의主된것은 如左

(單位千圓)

一、農村經濟更生政策助成費 一五、〇〇〇
(二十年計劃總豫算은 一〇七、四九〇)
一、森林治水事業費 三四、〇〇〇
一、漁港設備助成費 一、二〇〇
(十個年計劃總豫算은 一五〇〇〇)

은 認定되지안는다고 二十五日 發表하엿다

國體明徵의聲明

八月一日의 閣議에서 諮問

聲明文案도同時附議

【電通東京電話】 政府는 國體明徵에關한 聲明文案이 完成되는 대로 可及的 速히 右聲明發表의 手續을 取하기로하고 협상이잇어 來月一日의 定例閣議에서 岡田首相으로부터 國體明徵에關한 政府聲明發表의方針을 諮問하기를 正式으로 決定하얏 同時 聲明文案도 附議하야 各閣僚의 承認을求하게되엇다 그리고 이보다먼저 三十日 內閣審議會總會의 前後에 白根書記官長은 聲明文의 大綱을 林、大角、小原、後藤의 各關係閣僚에 提出하야 그意向을들을 터인데 此等의手續이 圓滑히進行되면 一日又는 三日中에 聲明을 發表하게될것이다 聲明의 形式은 政府의 公式聲明으로하야 內閣에서 各省에通達하는同時에 內務省에서 全國道府縣에 依命通牒하고 新聞紙上에 公表시키어 全國民에 게그趣旨의 徹底를 圖謀하는方針이다 그리고 文案中에는 機關說의 文字를 使用치안코 國體明徵의意旨를 明白에 두기로하고잇다

國體明徵對策 實行經過整理中

【電通東京電話】 國體明徵에關한 各省對策에 對하여서는 從來各省에서 實行한 對策에 對하야 二十六日 次官會議에서 그經過와 將來의 方針을 白根書記官長에게 報告하고 書記官長이 直接 이를 整理하기로 되엇는데 適當한時期에 이를 發表하리라 한다

鈴木鄕軍會長 陸相과會談

【大阪電話聯合】 在鄕軍人會長 鈴木莊六大將은 京都 武德殿에서 開催하는 靑少年 武道大會에 出席하고 [illegible] 新大阪驛着 [illegible] 來阪하야 [illegible] 驛中인 林陸相과 會談하고 午後零時四十分 大阪驛發 京都로 갓는데 林陸相과 [illegible] 고 在鄕軍人과 [illegible] 次 軍大化하려고 하는 此際에 兩大將의 會見은 注目된다

三黨首會見期日 三十日로決定

【電通東京電話】 岡田首相과 政民國三黨首와의 會見期日은 來三十日 內閣審議會 第四回總會日 各閣僚와 協議한 結果 그日字를 決定하게되엇다

東亞日報中學洞購讀請求所
【中學洞八八番地 千德基製粉屋】 【光二〇一二】

朝鮮에서流行하는 近代的얼분化粧用

水晶 백분
東京 大阪 松澤商店

冷用美酒 キクマツ 菊松
平壤 松岡酒造場 釀造元

佐光産婦人科院
平壤府大和町四五番地
醫學博士 佐光强三郎

專賣特許 モンデン式製粉機
農林省御推薦 各府縣御指定 補助金下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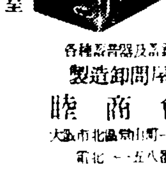
朝鮮總代理店 合名會社 曾我商店
京城府太平通二丁目 電話本局二一六八番 振替京城八九七番

우리朝鮮人本位의 唯一한
速修 英語講義錄
英語通信研究會

大阪 督名問屋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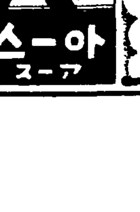
農林省獎勵 地方最良 副業
軍手製造家募集
國軍手京城營業所
京城府太平通二丁目 豊 本店大阪天滿橋一丁目

錫製造卸 大工道具
武村製作所

定價二割引 荷造運賃全額負擔
夏季大賣出中
美麗 參百臺限リ
規則書及型錄贈呈

各種蓄音器及部品 製造卸問屋 睦商會
大阪市北區

好職業 職工募集 江華電鍍工場
圓成社

七月二十八日부터 每日三回
永遠의靑春
나는낫, 그대는밤



[illegible] 株式會社 [illegible] 銀行 昭和拾年六月三十日現在 貸借對照表 [illegible]

十五年役의重刑囚 京城監獄에서脫走

宣川出生、强盜傷人犯許明浩

新義州서도一次脫獄

廿七일 오전三시부터 동四시까지에 서대문형무소(京城刑務所)에서 복역중이든 강도상인범(强盜傷人犯) 허명호(許明浩)가 탈옥한 사건이 발생되엿다.

그는 평북선천군 남면(平北宣川郡南面) 출생으로 강도상인죄로 징역 十五년의 판결을 밧고 신의주형무소에서 복역하다가 서대문형무소로 이송되엿는데 신의주에서도 한번 탈옥한 일이 잇다고 한다.

檢事正에게投書까지

搜索警官隊를嘲笑

◇就縛한지 一年만에 또脫走

奇想天外의 그犯行

허명호가 신의주형무소에서 재작년 九월 탈옥하야 가지고 평양 부근에서 잡히기까지 경찰관을 조롱하는 투서를 검사정(檢事正)에게 보내는 등 대담한 행동을 하엿다.

全朝鮮에手配

各署總動員

狼狽하는刑務所當局

허명호의 탈옥사건은 경찰에 급보되어 시내 각 경찰서에서는 총동원하야 경계중이다.

庶務課長談

雄基港工事中

人夫等盟罷

賃金올려달라要求

【웅기】 웅기항(雄基港) 공사중인 인부 七十여명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동맹파업을 단행하엿다.

密輸保證金을

騙取코監獄行

霖後에、傳染病猖獗

龍山管內에만卅名發病

腸窒扶斯와赤痢等

시내 용산서(龍山署) 관내의 급성전염병 환자는 장질부사와 적리 등 三十명이 발생하엿다.

群山港에서 二少年溺死

豚頭에熱湯끼얹엇다고

며누리죽인媤父母

可憐한者여! 네이름은 朝鮮의 며누리

埋葬한지 廿餘日만에 發覺

蓮 花

목마르니물달라!

비빨치는陳情

대구부청으로 몰려가는 호소

焦熱地獄의大邱郊外

【대구】 수일전 부외 원대동(院垈洞) 주민들이 목말라 못살겟으니 우리에게도 물을 주시요 하는 진정을 대구부청에 제출하엿다.

一時間停電

光州市暗黑化

【광주】 대흥전기회사의 영업소에서는 지난 二十四일 오후 八시반부터 정전되어 약 一시간동안 광주 시가가 암흑화하엿다.

一萬五千圓

列車內에遺失

紛失主人公아지不明

신문지에 싸인채 그대로

現金盜難

密輸者打殺한

稅關吏送局

殺人、殺人未遂罪名아래

注目되는檢事局態度

【신의주】 ...

◇各地雨量

二十六일 이래 二十七일 아츰六시까지의 각지의 강우량은 다음과 갓다.

▲京城＝二四 ▲미리 ▲江陵＝五 ▲平壤＝四 ▲新義＝一五 ▲城津＝五 ▲中江鎭＝三五 ▲雄基＝二

各地天氣實況

二十七日午前六時

中江鎭	晴	新義州	曇
平壤	霧	仁川	曇
京城	雨	全州	晴
木浦	曇	濟州島	晴
雄基	霧	城津	曇
元山	曇	江陵	雨
大邱	雨	釜山	晴
下關	霧	大阪	晴
東京	晴	天津	曇
新京	晴	奉天	曇
[illegible]	曇	大連	曇
青島	晴	上海	晴

無敵艦隊、普專軍

全新京을또擊退

對滿洲人蹴球에五對零

◇萬萬은全勝을博한普專軍

全日本軟球界의最高峯

八月三日에來征

◇兩軍의陣容도全部決定◇

◇全京城軍

◇全日本軍

日本水上의新記錄

黃海一週마라손

沙里院떠安岳에

또는시長途오로

市民이먹을府內在庫米

四日分糧米에不過

지난번 洪水때에 發見된事實

水害繼續됏더면 큰일날번

十二歲少女姙娠

금년정월에폭행당하고

父母는犯人걸어提訴

【광주】 十二세의 소녀가 임신하야 ...

天氣豫報

夏期巡廻講座・廿九日부터一齊開講

關北隊

地	日	講座	
元山	七月廿九日(月)	文藝=鄭寅燮、哲學=金斗憲	每日午後八時開講 場所=光明學校 聽講料=三十錢
	同三十日(火)	經濟=金洸鎭、衛生=尹日善	
咸興	七月三十日(火)	文藝=鄭寅燮、哲學=金斗憲	每日午後三時開講 場所=永新學校 聽講料=四十錢
	同卅一日(水)	經濟=金洸鎭、衛生=尹日善	
清津	八月一日(木)	文藝=鄭寅燮、哲學=金斗憲	每日午後二時開講 場所=共榮館 聽講料=三十錢
	同二日(金)	經濟=金洸鎭、衛生=尹日善	

關西隊

地	日	講座	
海州	七月廿九日(月)	經濟=李順鐸、新聞=薛義植	每日午後三時開講 場所=海州會館 聽講料=
	同三十日(火)	法律=王璿珍、文藝=李熙昇	
平壤	七月三十日(火)	經濟=李順鐸、新聞=薛義植	每日午後三時開講 場所=白善行記念館 聽講料=四十錢
	同卅一日(水)	法律=王璿珍、文藝=李熙昇	
新義州	八月一日(木)	經濟=李順鐸、新聞=薛義植	每日午後 開講 場所=日新學校 聽講料=
	同二日(金)	法律=王璿珍、文藝=李熙昇	

中央隊

地	日	講座	
仁川	七月廿九日(月)	歷史=白樂濬、政治=高永翰	每日午後八時開講 場所=第一公會堂 聽講料=二十錢
	同三十日(火)	經濟=盧東奎、教育=崔承萬	
開城	八月三日(土)	經濟=朴克采、教育=崔承萬	每日午後七時開講 場所=高麗青年會館 聽講料=三十錢
	同四日(日)	政治=高永煥、文藝=徐恒錫	
春川	八月五日(月)	經濟=朴克采、教育=崔承萬	每日午後二時半開講 場所=春川公會堂 聽講料=五十錢
	同六日(火)	政治=高永煥、文藝=徐恒錫	

南部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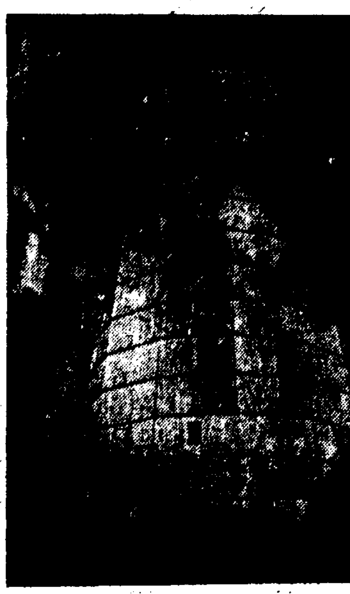
地	日	講座	
清州	七月廿九日(月)	政治=俞鎭午、文藝=徐恒錫	每日午後二時開講 場所=清州學校 聽講料=五十錢
	同三十日(火)	歷史=孫晋泰、經濟=李勳求	
大邱	七月三十日(火)	文藝=鄭寅普、政治=俞鎭午	每日午後三時開講 場所=朝陽會館 聽講料=五十錢
	同三十一日(水)	歷史=孫晋泰、經濟=李勳求	
釜山	八月一日(木)	政治=俞鎭午、文藝=鄭寅普	每日午後三時開講 場所=公會堂 聽講料=五十錢
	同二日(金)	歷史=孫晋泰、經濟=李勳求	

湖南隊

地	日	講座	
大田	七月廿九日(月)	文藝=金尙鎔、衛生=李榮俊	每日午後三時開講 場所=第二公立普通學校 聽講料=
	同三十日(火)	政治=高永煥、經濟=尹行重	
全州	七月三十日(火)	衛生=李榮俊、文藝=金尙鎔	每日午後七時半開講 場所=公會堂 聽講料=三十錢
	同三十一日(水)	經濟=尹行重、政治=高永煥	
光州	八月一日(木)	文藝=金尙鎔、衛生=李榮俊	每日午後八時開講 場所=第一公普校 聽講料=五十錢
	同二日(金)	政治=高永煥、經濟=尹行重	

民間六大男女專門學校聯合・東亞日報社主催

學藝



文壇動向의打診 「九人會」에對한批判 (一)

金斗鎔

「九人會」를 批判하라한다。그러나 그것을 批判하기는 쉽으나 困難하기도하다。그理由는「九人會」의 모든 作家를 一一히 批判하여야 될일인까닭이다。

「九人會」는 누구나 다아는바와 같이 一九三三年八月에 創立되엿다。그때의 會員은 李泰俊、鄭芝鎔、李孝石、柳致眞、李無影、金幽影、趙容萬、金起林等 이엿作家이엿다。그後에 다시 새로히 加入한會員도 잇어 지금은 十餘名이라고한다。

이러한 作家들이 무슨理由로 九人會를 組織하엿으며 그組織의目的하는 바는 어데잇을가?

그것 은「카프」에對한 反抗으로 組織하엿다고 볼수잇다。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九人會作家들은 所謂中間派的 作家로 自處하며 푸로레타리아 民族主義文學에도 加擔치 안핫고、또한 푸로레타리아文學에도 參加하지 안핫다 그들은 그兩者間에 잇어서 或者는 民族主義文學에 더만흔 關心을가지고잇엇고 或者는 푸로레타리아文學에 더 一層親近하여잇엇다 所謂同伴者的作家의 立場과 態度를 取하여잇엇다。

그러나 情勢가 困難하여지고、푸로레타리아 文學이 一層沈滯하게되는때에 그들은「九人會」에모이게되엇다。그들의 結成의 根據는 그들의「이데오로기」가 明瞭치 안흔點에잇섯고 또한 文學의 藝術性擁護의 主張에잇어서는 一致한點에잇섯다。

假令 例를들어 말하면、「九人會」가 組織된 [illegible]

그이들에 正初에 朝鮮日報紙上文藝欄中에 發表한 그들의所見가운데에서 우리는 一、一致된點을 容易히 發見할수가잇다。

가장 明白한것은 李鍾鳴氏의「文學의本來의傳統인「藝術의純粹性」이라는것을 主張하는同時에 文學의思想性을 拒否하여 이러케 말하엿다。

「文學은 어느一定한 思想이라든지 態度속에다 規範하여가지고 製作한다면 그것도 과연 文學이 될수잇을가고 나는 일생 생각한다。自古로부터 偉大한 作家란 思想的인 無意識中에서 製作된 것이라고볼수잇다。「라이레드」가 그러하고「파우스트」가 그러하다」云云

中央 日報에 投稿를 쓰고 잇든 李泰俊氏는 答辯을 出版한後에 創作의 態度에 關하여 이러케말하엿다。

「作品과 生活이 竝走中이다。

「이러한 過去와自己作品은 傳統的인 狹少한世界의 觀念이엇음을 自覺하는」同時에 將來는「어서어서 내生活의 뒤를따르고 小說을써서 [illegible] 作品을 創作할려고 努力中이라」고

自我의完成을 期하는 個人主義的藝術의 制限—이것이 李氏의 文學的態度이다。

「모더니즘」을 代表하는詩人、金起林氏亦是 李氏와 同一한態度를 取하고잇으니 그것은 金氏의如左한文句가 明白히 證明한다。

「詩人은 디시말하면 忠實하기 때문에

爲先 自我에게 忠實하여야한다。여기에詩人의 眞摯性이잇다。「무엇상스」의 眞摯性이엇다。

「人間의探求!」 今 人間探求—自我完成의 길이다。「가로 바—詩人鄭芝鎔氏는 [illegible]的詩人인것은 누구나 다아는바이며 그는 人間探求의結果、人間救濟의 길을 天堂에 求하게되엇고、李無影氏는 朝鮮의 多難性를 作家로 個人的 孤獨、懷疑、苦悶 [illegible]

不平을 항상 가슴속에 품고 잇으면서도 創作、批評、隨筆을 連續的으로 發表하는作家이며、같은 批評家의 批評에 恒常不滿을 가지고 잇다。白鐵、林和等의 批判을「批評的인 너무批評的이라」고 稱하는作家도 李氏이다。同作者的 立場을 確實이 取하고 온 李孝石氏는 九人會가 組織되던 後

同年 十月號 發表한「豚」에關하여 朝鮮日報紙上(一九三四年 新年號)「豚」는 自己가 創作의 基本方法으로 생각하는 「리알리슴」과 浪漫의 中間의길을 取한作品이라고 稱하고 今後도 自己의「性」과「비위」에 맞는 純粹 리알리즘의 길을 갈라고 하다고 明言하엿고、

柳致眞氏 亦是 「徹底한 現實의 把握」을 創作의 基本的方法으로삼고 「土幕」「버드나무선洞里風景」을 發表한 後 自己가 取하여온 「리알리즘」의 悲觀的 現實을、너무 現實대로 그린結果、作家로「니힐리즘」에 빠지고 讀者도 救할수없는 絶望과 悲情에빠저 讀者는 悲觀的 現實을 그린 指導에 對하여 도로혀 憎惡을 느끼게되는事實을 發見하엿다한다。그리하야 在東京年餘間에

創作 態度에도 變換을 일으키게되어「現實의 把握으로부터 大衆性의開拓」을目標로하고 再出發하게되엿다。그 最初의作品이 「소」로 나오게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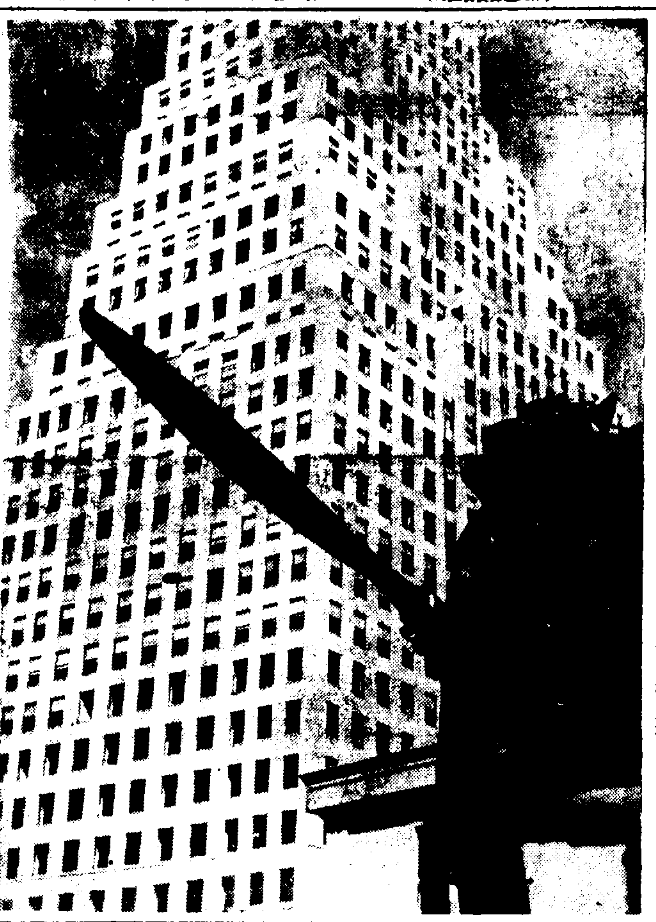
以上에잇어 九人會作家들의 共通點은 무엇인가? 各自가 論하는바 主張은 비록다르다。그러나 그主張의잇어 同一한根據는 個人의根本的目標가되고잇다。이러한 主義的 純粹藝術—藝術의 純粹 所謂純文學을 發展시키기 위한集件에잇다。이것이 「九人會」組織의 [illegible] 即 九人會이다。

兒童文學과理論缺如

偵探機

현今의 少年運動이 微烈하고 따라서 兒童에 對한 關心이 부치함에 兒童文藝方面에 對한 批評、創作이 相當히만히 보이더니 最近數三年來로는 二三少年讀物作家의 作品이 散見될뿐이오 이方面을 좀더 高度에로 끌어올리기爲한 理論의 提示라할것은 기다려도 나오지아니하다。그러고 少年運動도 兒童文學에關心하는 사람들 中에는 年齡이 더해감을따라 童心과 兒童心에 對한 熱愛를잃어 方向을 轉換하시는사람도잇고 한편으로는 [illegible]을 通하야 단지 技術的인 方面에 잇어서 月一二回의 童話放送이나 하는것으로써 우리少年들을 爲하야 커다란 奉仕나 하는듯이 스스로 생각하고 잇다。만일 우리로하여금 僭言을 許케한다면 그放送조차 放送料金의 收入이 없으면 아마 하지안고 말리라하고싶다。우리의 이러한 苦言이 無用의 辯이될때는 어서오지 안는가。

한개의 適切한 理論이 그共鳴者를 엇을때에는 그로부터 생기는 效果는무섭게 큰것이다。조흔作品을 내노키爲하야 全心力을 傾注하는것은 더없이 貴한일이 어니와 그러한 作品을 나코저 하는 作家들에게 조흔 刺戟과 指示가 될만한 適切한 理論이先行하는것은 이또한 바라서 마지 안흘일이다。文壇全體에 아부러타한 支配的理論이 없는 이때에 兒童文學에만 그것이 잇으라 할것은 못될는지 모르겟다마는 最近 兒童文學界의 理論貧困은 明瞭히 指摘할만한 現象이므로 該方面의 人士에게 一言를 보내는바이다。(알 파)



二十世紀의文明이란!

【뉴욕發聯合】 摩天閣과 時速數百哩로 大空을 快翔하는 飛行機는 所欲대로못하는 것이없는 人類의 偉大한 成果인 物質文化가 이一幅의 寫眞에 表現되어잇다。寫眞은 紐育의 中心街市內에잇는飛行機發着所에서撮影한 광경

南國의凉味

京城印象 (中)

極熊

또하나 놀란것은 에누리가 甚하고 거즛말이 만타는 것이다。東京도 高世價 洋服파는 가게에서는 相當히 에누리를 하고 잇다 내가 東京서 專門學校 다닐때에 二十五圓 달라는 세루學生服을 저고리 하나를 五圓주고 산일도 잇엇다。그러나 이것은 高世價나 或其他 한두군데에서나 잇는일이요 다른곳에서는 그리 甚한 에누리가 없는것이다。

米國서 三十弗짜리時計를 十五弗에 特別히 판다고해서 그게 廣告를 하엿기에 멋모르고 들어가서 고처달라 하엿더니 [illegible] 고 물은즉 元來 나쁜時計인 까닭에 고처도 또 잘가지를 아니한다 이니 우리商店信用上 그런일은못하겟다고하야 어쩔수 없이 그저 나온일이 잇다。내가 時計사간가게는 곧 猶太人의것이엇다。猶太人들은 巧妙하게 잘속이는 모양이다。그리하야 米國서는 猶太人商店에가서 物件사지 말라는 말을 만이듣게 된다。猶太國에서도 그러는지 이는 [illegible]

지라 살일수는 없으나 서울서 百貨店이나 좀 큰商店에서는 그렇게 理致지마는 좀 적은가게 또는 特히생선장사 菜蔬장사 나무장사及其他一般의 조고마한 일하는者들의에누리에는 허를내롭드게 되엇다。하도 어이가없어서 왜그러케 에누리를 하느냐고들으면 장사치고 에누리없는 장사 어데잇나요 依例히 남들도 다 그러케 하니 까요—하고 商業方針을 말해주게 되니까더말할것도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物件을 살려면依例히

런것이니까 혼자만 곳곳하게할必要가잇느냐고하고만다。그럼뿐만 아니라 世上놈들치고 거즛말아니하는놈 없으매 多少이럴때 이러고 저럴때 저러게해보는게지하는 것이 普通이다。엄튼 말하면거즛 말을不正直 不信實로 안다는것보다도 一種의 不可避의일로 또는一種의 處世道로 수고 받는이 조차 默認하는 程度에 까지 이른것 같다。

조곰 레벨이낫은 層으로나려간다면 거즛말쓿하고 풍속떠는것을 그리 옳다고는 아니 하면서도 [illegible]

거즛말이 만고 또거즛말하는것을 普通부실이로 여기는데는 놀라지 안흘수없엇다。거즛말 하는 것으로 안다는것 보다도依例다그으로서는 物件사기에 無能力者가 [illegible]

(海)(外)(學)(藝)(뉴)(一)(스) 오토太公이政治學博士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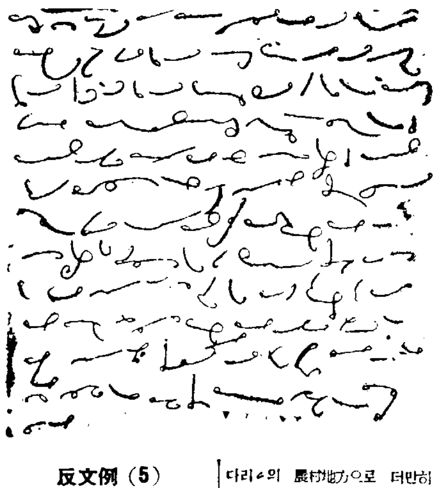
【부러셀發聯合通信】 만일 墺國에 風致대로 합스부르크家의 復辟이 實現된다면 當然히「墺國皇帝」로 君臨할 오토太公은 母后치타妃의 希望에따라 [illegible] 師의 學位를 엇고져 목下白耳義의 뿌릿셀에 서帝王으로서의 敎養을 싸코잇는 中인바 熱心히 공부한 보람이잇어 이즈음 뿌릿셀의 루에大學에서「政治學博士」의學位試驗에合格하엿다。오토太公의 學位論文은墺國農民階級의 慣習及世襲權、即農村不動産의 不可分性에就하야 라는題이다。이로써 太公이얼마나祖國墺國에 關心을가지고 잇는지를 알것이다。太公은論文의序頭에「吾人은墺國農民에게서 我等의 利己主義的인 世界에 絶對로 必要한基督敎精神의 復活을 期待할수잇다」고 故國의農民에 多大한 敬意를表하엿다

오토太公은 今年二十二歲、最近墺國諸市의 市民權을 取得하엿는바 이는太公의 墺國復辟의第一步라고觀測된다

朝鮮語速記法新案

姜駿遠 (完)

速記例 (5)



反文例 (5)

예수께서도 世上에 계실때 (때는 따로 씻읍)반드시 먼저 罪隣에 當한者를 돌아봐 病든者를 고치(시)고 飢餓에 우는者를 먹이(시)고 목마른者를 마시우(시)고 죽은者를 復活케 하(시)고 우는者를 慰勞하(신)다음에 비로소 主의 道를 傳하셧으니 이와같은 것이 그傳道方法이엇으며 使徒들과 모든 聖徒 또는 그의 弟子(들)도 다 이것을 본받아 行한것입니다。그런故로 主님과 그의弟子들도〃유대●엘사렘〃보다도〃가찌끼●사마다아〃와〃스브론●납다리〃의 農村地方으로 더만히 다니(시)며 貧民에게 福音을 傳하(신)것이 올시다。그러므로 主님께서도 우리에게 新誡命을 주(시)고 이를 좀더 分明히 解說하기 爲하야 착한 사마다아 사람의 比喩를 주(시)고 當時 指導級에 잇든 祭司長과 레위사람은 사랑의 福音을 傳할 資格을 잃어버리고 오직 한 貧寒한 사마다아人이 그 不行黨밖은者의 이웃아우친구라고 말슴하신 것이올시다。오늘의 世界는 思想的 또는 經濟的으로 무서운 恐怖에 싸여잇고 朝鮮農民의 生活은

붓을때면서

1、拙文과 誤字를 거듭하면서 이러저럭 愚稿는 끝맺게 되엿읍니다。本稿는 原來 筆者의「메모」를 한 재 써잇든것을 다시 고처쓸 時間도 없거니와 다시 쓴대야 結局 內容에는 아모러한 다름이 없겟으므로 體裁가 單行本같이 된 놈을 그대로 活字化한 것이여서 速記法의 講座같기는 한데 新聞紙上의 單行本과도 같은 矛盾이 생겻읍니다。

2、速記〃法〃이래서 그런지 갓득이나 文字이 法文에 지지안흘만큼 딱딱한데 다가 때때로 너머 甚한 誤字들이 만하서 더욱 罪悚스럽습니다。이를 大槪 적으면

回數	正	字	誤	植
1、	晩近		晩遇	
4、	童謠		童講	
●、	言文一致		言文一綴	
[illegible]	必然		必要	
●、	피트맨●그렉		피트맨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	[illegible]		편심	
7、	文字		文學	
19、	[illegible]		疊語	
21、	[illegible]線		綫外線	
●、	物		物	
	끝●머리		끄트머리	

그리고 [illegible] 圖面中에는 製版의 關係인지 當치도 안흔곳에 點과線들이 그어진것도 잇으며 或은 도모지 不分明하게 나타난데도 만사오니 諒察하시기를 바랍니다。

3 모든 事物에完全은 없다하지마는 本法도 이것으로 滿足하다하기까지에는 아직아직더 硏鑽되어야할 未完品이올시다。速記法을 맨드는데는 本法과같이 幾何線같은 모양을한것과 이밖에 草書派라하야 羅馬字모양으로 쓰게되는 文字組織도 잇어서 速記硏究는참으로 前途洋洋이라 할것입니다。아모조록 熱誠스러히 硏鑽을 싸하 주십시요

4、朝鮮의 速記硏究는 참으로 無氣力한것이 엇섯읍니다 硏究機關이 생기자 없어지고 硏友가 모이자 허터지는 奇現象이 거의 眞理처럼 橫行합니다。그러타고 우리에게 硏友와 硏究機關이 必要치 안타는것은 아니다 좀더 熱烈하고 明哲한 硏友들만이 切實히 必要되는이때 입니다。그러게요緊한 弟子와 諸先生은 하늘에서 나려거나 땅에서 솟는 것이아니라 亦是 諸君여러분속에 儼然히 게실것을 믿고 잇읍니다。

5 本稿를 마치기 까지의 本文解說에 對하야 질문으것이 계시오면〃京城府外西大門町〃番地〃筆者에게로 問議하야 주시면 힘자라는데까지 應答할 작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健康을 빕면서! 그리고 硏鑽도 바라오면서!!

第六回 全朝鮮 男女學生作品展

◆開會期間及場所
九月二十一日부터同末日까지
本社 三層 大講堂 에서

◆部別及出品種目
中等部 繪畵 習字 手藝品
初等部 繪畵 習字 手工品

規 定

◆出品期限 九月十二日까지

一、出品作에는 每一個에 下記各項을 作品裏面에 반드시 詳記할것(此에 違反하면 考選에 넣지아니함)。道郡面名、學校別(中等、專修、初等)、學校名、學年別、男女別、氏名、年齡
一、出品作에는 반드시 在籍學校 擔任先生의 認證判을 添付할것。
一、出品作은 顧慮할 境遇에는 그價格을 明記할것。
一、出品作은 願據에 길 繪畵와 裝裱한 習字와手藝手工品에限하야 返送하고 (但返送料金은 本社가負擔함) 그外

◆搬入場所 本社。平壤、大邱、咸興各支局

는 返送치 아니함 (返送料金의 添付 또는 申送이잇어도 此에 應치아니함)。
一、出品作은 東亞日報社 學藝部로 보내되 外封에 반드시「學生作品」이라고 朱書할것。
一、中等部中 專修學校生의 出品은 此를 特殊取扱함。
一、出品作은 考選하야 入選을 決定하고 入選된것을 다시 嚴選하야 入賞을 決定하고 入賞作品中 特히 優秀한作品이 有할時는 特賞을 施함

定
主催 東亞日報社

同人各題 껍질못벗은人生

李鉀

「자 이런때 차 한잔 마시고 갓으면 조켓다만。」하는 K君의 提議에、

「가세들、내가 냄세。」H君은 따라서게 되엇다。나는 두 번을 선뜻이 應諾햇다。

밤 열時가 지나도록 雜踏한 夜市를 외로이 돌아다니는 동안 목에 渴症까지 생긴 이때에、마침 夜散步를 마치고 나오는 두 벗을 만나 함께 찻집을 찾게 된것은 實로 偶然치 안흔 寂寞의 好機엇다。

×

들어선 곳은 그리 적지 안흔 어떤「빠아"엇다。가리를 잡을수없는 蓄音機의 亂雜한 騷音、그리고 에저기 椅子에 허터 걸어앉어 唯談에 얽힌 손님들、푸른 불빛을 뒤집어 쓰고 이리 저리 좁은통궁하는 裸體 그대로의 女給들의 종아리、이곳의 殷盛한 풍경을 짐작할수 있엇다。

저 안쪽 바로「쥬—바놈」에 자리를 잡은 우리는「스트로」로 소다水를 들이 빨며 아무말없이 가끔 서루 얼굴만 처다보군 하다 가、

「어이 Y君、자네 아마 이런 데 처음이지?」하고 H君은 방

그레웃으면서나를바라보앗다。나는「異常햇지처음이여。」하고대답하니

「아니 正말?」하고K君이 눈을똑바로 뜨고처다본다。H君도 빨든「스트로」를 노코 가치처다본다。나는

「異常내나나 아직껍질못벗은人生이여。」하고H君이 좀뜻을드러다。이어서 世上을 한바퀴돌아본다면 이런곳도 밟아야 한다는둥 人間社會를 잇게된이럿곳에서 人間社會를 알어보지못하는 우리는 果然껍질 못벗은人生이라는등하고 K君이 말햇다。나는이 K의말에 어느 點으로보아 首肯치안을수 없엇다 이때에 뒤에서「오이하나모—」하는소리와 지대어「이새끼 내보내」 하는 伴난소리가 낫다。

우리는 훗힛하고 一齊히 뒤를 돌아보앗다。거기에는 한六、七歲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왼

팔에 자그마한 紙箱子를 끼고이루구 軍艦을 파아달라고 손님들에게 조르는것이엇다。그러케 對答을 보내는 女給은 살짝이 달려들어 몇자욱 자로 어린애를 휩미잡이를 하야 門밖으로 내몰앗다。

땅에 발이 놓을사이없이 젓몸이 밀린 아이는 벗어진 모자 밑에 나를 떠나가는 아이의 동정미가 사라지자 우리는 그손님들에게로 觀察을 옮겻다。그들의 얕음얕음어리도、아서운 世上의 冷酷도、「아도 새끼 에서 자나?」하고 참혹 하는

일어서 나왓다。이웃고 門밖까지 나온 우리는 熱忱하고 방울 맘주지 안을수 없엇다。哀愁에 없더진 새世界를 翻倒한 한개의 가없은 人生—그것은 젊지잇은 人生에게 縱承을 넘만한 아까 그어린 生命이엇다。

「가르랑가르랑」하고 끄는 소리를 보아 사나운 風霜의 고달핌도 어찌할수 없엇다。

저나가는 뭇사람의 차디찬 얼굴도、나는 다 보는 다른곳이、고요한 꿈나라에서 오지 껍질벗은 人生이 아닙 그 누구를 求하려 하야고 잇는것이 分明하지 안은가。상을 찡그려며 서로 한번씩 힐껏 처다보고 아무말없이 하간에 나서오는 우리 셋은 세상사 [illegible] 벗은 人生만이 가질수잇는 무거운 생각에 사로잡혓다。

英國新心理主義文學小考 (7) 올더스●헉슬레 (續)

金永石

헉스레—의 第二短篇集을발●코일스(一九二二)卷頭에실린「죠콘다의微笑」는 作的叫脈으로 因한 無意識的殺人事件을 取扱하엿다 主人公스펜스렐은 相當한 敎養을 받은女性으로 三十五歲가 되도록 獨身으로지나면서 本能의 衝動을 抑壓하여왓다。그抑壓의 結果는

不絶히 그입술에 떠오르는「마치 죠콘다의微笑」와도같은 微笑(모나리자의微笑)로 表現된다。스펜스렐은 헛튼이라는 旣婚男子를 戀慕하고잇엇으나 헛튼의妻(病中에잇다)의 存在로因하야 願望을 遂하지못하다。어떤날 點心때 헛튼의夫婦와 스펜스가 한자

리에서 커피를마시면서 雜談을하고잇엇다。커피를 마신다음 헛튼은 스펜스의 手를 잡고 [illegible] 自己도모르게 커피에毒藥을 놓너허 常用藥을 마시고커피를먹은 헛튼夫人에게 준다。夫人은 그날밤 헛튼이 스펜스를찾어 가니 스펜스는 타오르는 情熱에 못견디어 헛튼에게 사랑을 求하다。그러나 헛튼은 그때 도 리스란小女를 사랑하고 잇엇으므로 拒絶하고 뛰여 나온다。

헛튼은 스펜스는 도리스에게 再拒絶한 스펜스는 [illegible] 헛튼을 對한 嫉妬로 헛튼夫人을 [illegible] 죽이게 [illegible] 이殺害하엿다고 告發을 하야 헛튼은 法廷에서 死刑을받게된다。

이와같은 梗槪를 作者는 놀랄만한 興趣와 重要로 헛튼과 스펜스의 心理解剖를 描寫하엿다。스펜스의 本能의 抑制와 그의微笑와 헛튼夫人을 殺害한行動과 헛튼에 對한 復讐를通하야 不義와 同意의 反 [illegible]

「—(略)—이런일이 正當하였나 모르네요。아와같이 당일인지 알수없어요。」

「아니요 그래?」

「가만히 안하면 無謀한 罪로 에걸린다구 —(略)—

신과하자리에서 서로사랑하는 고 또 는 당신이 내계發展하는때에 즉 고하는 이것이 正當한가를 發見합니다하고 도리스가 말하게 될때 [illegible] 이다。

「正當하나요?」아 [illegible] 性의 抑制된 [illegible] 는 [illegible] 이 [illegible] 어보시오」 [illegible] 프로이드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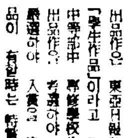
漢詩

紫白敢人選

櫻桃 選外

黃鍾謙

櫻桃紅熟對朝暉、萬顆明珠映翠微、人執銘筐和露摘、鳥含珍實向風飛、瑛盤擎出爲先薦、瓊液頒來從所關、蜂蜜徒甜羊酪膩、淸眞兼味世間稀



新刊紹介

▲前線 七月號 定價三錢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八八 振替京城一六 九四七番

▲民衆時報 七月十五日號 定價一錢 發行所 大阪市東成區東小橋南之町三ノ八五民衆時報社 振替大阪五二八四〇番

▲培花第八號 發行所 京城府 [illegible] 培花女子高等普通學校學友會 振替京城十一、四三七番 非賣品

▲讀者 요사이 米國 어느土窟에서 [illegible] 시작을 했는데 [illegible] 물건을 [illegible]

東亞살롱

「곤자레스 사나이」가 되려고 巨大한 犧牲을 치렀다고 할수잇다。

ClibPDF - www.fastio.com

악성의 유년시대 (四)

쇼팡

열세살에음악가로 이름이나랏으나 그의일생은적적햇다

사진은 쇼팡

오늘은 「쇼팡」이라는 음악가의 이야기를 하겟습니다. 어사람은 폐기로서 이세상에낫으나 어머니가 폴란드 사람이오 아버지가 佛蘭西사람으로 슈빌트가나지 一三日후 一八一○年에 폴란드의 소라는 비촌에서 첫울음을 내엇습니다. 넉넉지못한 집안이엇으나 아버지와같이 가지 아버지는 …로 일곱살때부터 서생을 데하야 음악공부를 시작으나 열세살부터 음악의 이론을 연구하여가지고 열여덟살에 참으로 음악의 이론을 알고 독립하엿습니다.

어렷슬때 불란서 음악가로서 위인나(維納)에서 부터 하고도 우서운많음아에서 언세나 이나 …하석을 열어 대성영을 받 숭종이 싸여잇는지라는 회고양양 온석이 외하가로서 세상에 소게하엿드랍니다 어려서 남을새미봅된 시사이엇습니다. 개하든 쇼가 장사 전세 우의에 전세계의 이목을 놀래계의인기를끄는 인물이 될줄이야 세하든 쇼팡도 소년시대는 어시 그때 우섭게도 더하든 동무들이 가이 적적한 생활을하엿으나 …

란드에 내란이 일어나 어것을편하라고 스므살에 고향을떠나 파리로 망명하엿으나 영원히 고향으로 돌아가지못하고 방랑생활을하엿습니다.

파리에서 지내는동안 폐병에 걸려서 서반아 어떤 섬(島)으로 휴양하러갓든것이 수토가 맞지아니하야 병세가 더하엿으므로 파리로 다시 돌아왓으나 적적하엿고 一八四八년에 일어난 유명한 불란서 혁명에 쫓겨 영국으로 갓다가 이듬해에 다시 파리로 와서 설흔아홉살을 일기로하야 친구의 보호밑에 숨엇습니다.

어러케도 미미하는 그의생활을 통하야 오늘날 전세계에미치는 그의 음악의 힘은 실로 큰것이라 하겟습니다.

방학동안에 벽에 부치고 명심하시오

◇언제나 기운차고 명랑하게。
◇길가에서 놀지안토록。
◇이를 아츰저녁 닥도록。
◇일기는 밀리지 안토록。
◇책을 귀중히 취급하시오。
◇공부는 서늘한 아츰에。
◇동모끼리 사이좋게 하시다。
◇어린동생을 사랑하고。
◇부모의 말슴을 잘듯시하고。
◇심부름 부를때는 송시하게。
◇학교에서 가르친 방학동안주의
◇사건을 삼가합시다。
◇나쁜동무와 놀지말고。
◇몸을 단련시키시오。
◇밤에는 일직자고 아츰에일즉어나십시다。
◇음식물에 주의할것이오。
◇혼자서어도에의항이하지말고。
◇길가에 아무루 씨게기버리지말고 공덕을 지킵시다。
◇기상시계 가르고 담배을 단련합시다。
◇수족이나 몸을 청결하게。
◇위험한 노릇은 말고。
◇유쾌하게 배일 지냅시다。
◇남보기에 불유쾌한 얼굴을 하지말것이오。
◇반드시간에 신문보기를 게을리말고。
◇사람을 대할때는 언제나 웃는얼굴로。
◇혼자서산이나 바다에가지말고。
◇무엇이나 친절하고 정중하게할것이오。
◇선생님께 문안하고。
◇모든것을 규측적으로。
◇길가에서 군것질은 절대로 맙시다。

동요 소똥구리

崔守福

한놈은 밀고 또한놈은 당기고
길가에 소똥구리
똥을굴리며
영치기영차 영치기영차

소발통이 무서워 어서굴려라
고개넘다 굴어나도
풀에걸려도
영치기영차 영치기영차

매암매암 노래를 부르건 말건
겨울양식 싸키위해
더운볕에서
영치기영차 영치기영차

송아지

이구조

一、송아지
앞 언덕에
매ー매우는
송아지 버ー우?
심때ー 나ー
엄마 보구싶어
저랫다우。

二、강아지
고놈의 강아지
남 놀려먹어
누가 저하구 놀셋나
(엄마 머리 빗을제
어누르고
하누르던 찐가)

三、망아지
망아지 새끼
짓 따먹는거 바
에이 부시워!
다까짓 애기에게
엄만、젓주지 말어옹

애기네 소설 편지

◇…李無影

첫재

경재야 아무 탈없이 잘 잇느냐、안사 하라버지와 할머니도 안녕하시냐。아저씨는 요새 더위서 죽을 지경이다。

이번엔 오래간만에 잇으니까 외할머니가 퍽 위해주시겟구나。귀염받구 바다구경하구 아주 상팔자테ー

그런데 요전 공일날 집에 갓더니 네 통신부가 왓는데 갑이 네갠데 을이 다섯개나 되니 어쩐셈이냐。시험 잘 봣다구 큰소리만 탕탕하더니 그만에 코가 납작해젓구나。임한 아주머니두 우능을 하구 마산 숙성이두 우능을 햇다는데 너만 우능을 못햇으니 인저 창피해서 편지도 못 하겟구나。

둘재

요전 편지 보앗느냐 오늘 사진박은것을 보내니 한참만 보냇다구 하구 싸우지말어라。이것은 이한 아주머니를 주어라。네사진은 집에다 갓다 두엇다。

부디 아침에 일직 일어나서 공부하고 낮잠자지말고 저녁에 시원해서 공부좀하여라。할머니가 귀엽다구 자꾸 먹을것을 주시거던

「할머니 미운애기는 만히 먹인대요」

하고 한번 뽐내여라。치고리처럼자꾸 떼깝 떼깝 받아먹다가 배탈이나면 어쩔레나。

그러구 바다가에 가서 놀더라두 깊은데 들어가지말구 모래밭에서 놀도록 하여라

서울서 아저씨

(童話) 낙시

◇…金福鎭

고개넘어 연못속에는 수백마리 잉어가 구수하게 살고 잇엇읍니다。한물속에 여러식구가 살면서도 한번도 싸운적이 없엇읍니다。새끼잉어들도 엄마잉어의 말을 잘 듣기때문에、큰소리한번 나지안핫읍니다。

어떤공일날이엇습니다。봉추、인걸이 동이 이러케 세동무는 고기를 잡으려고 낙시대를 하나씩 둘러매고 고개넘어 그연못으로 갓습니다。

그래 연못가에가 앉어서는 낙시대 바늘끝에다가 고기밥으로 지렁이를 꼬여서 한꺼번에 연못물속에 던졋습니다。

낙시는 시원하다는듯이 「퐁당」소리를 내고 물속으로 들어갓습니다。

이때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놀던 잉어새끼들은 눈이 뚱그래졋습니다。

「저것 봐라 저것봐라!」

하고 꼬테 잉어새끼가 고함을 처니까

「아주 고소ー한 냄새가 나는데ー」

「글세、우리 하나씩 먹자ー」

이러케 떠들고 잇을때 저ー편 쪽에서 엄마잉어가 헤엄처서 오더니

「얘들아 그것을 먹으면 안된다 그것은 지렁이라고 하는것인데 그속에는 아주 무섭게 뾰족한 바늘이 들어잇어서 먹으면 담박 바늘에 새여서 올라간다 조심해라」

하고 일러주고는 다시 저ー쪽으로 헤엄을 처서 갓습니다。

이말을 들은 잉어새끼들은 처음에 무섭게 생각을하고는 안먹으려고햇스나 작구만 먹고싶어서 견딜수가없엇습니다。

그래 지렁이앞으로 밧싹가서 냄새를 맡아보고 톡톡 찔러보고 한번 더러보기도햇으나 암만해두 그속에 바늘이 드러잇을것 같지안핫읍니다。

「난 먹을테다。암만봐두 바늘이 없는데 뭘」

하고서 잉어새끼하나가 지렁이를 덥석 물엇읍니다。

이것을본 다른잉어도 덥석덥석 무럿습니다。

이때나 잡힐까 저때나 잡힐까 하든 아이들은

「옳지 조쿠나ー」

하고 낙시대를 채엇읍니다。그래서 그만 잉어새끼들은 주둥이가 꿰여저서 끌려 올라갓습니다。

끌려 올라가면서도 잉어새끼들은 막 몸부림은 첫으나 소용이 없엇습니다。

「에ー참 속앗구나!」

[illegible]

햇님과시계

崔秉和

연두빛 보드라운 풀밭속에 조고마한 시계가 떠러저 잇엇습니다。그것은 어여쁜 은시계엿습니다。새빨간 리봉이 매여잇는데 아마 어느귀한집 아가씨가 꽃을 따러왓다가 고만 떠러트리고 간것인가봅니다。

고요하기도한 풀밭속에서 이제는 시계는 이슬을 축축이 맞은채로 째깍 째깍……하고 감안히 시간을 가르키고 잇엇습니다。

햇님이 살작 풀포기 사이로 드려다 보앗습니다。풀잎사귀의 거림자가 시계우에 알른알른 움지이고 잇엇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못본듯이 그저 째깍 째깍하고 소리를 내고잇엇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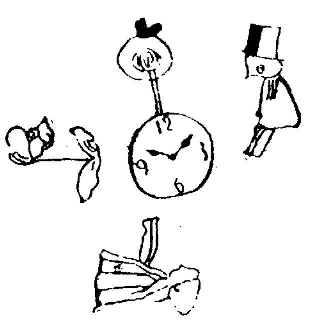
「아ー이게 무슨소린가?」하고 패랭이꽃이 드려다보앗습니다。

「메뚜기야ー이게 무슨 소리냐」 패랭이꽃은 옆에잇는 메뚜기에게 무러보앗습니다。

「나도 몰르겟다」 메뚜기는 무뚝뚝하게 대답하엿습니다。

「메뚜기야ー노래를 불르고 잇고나」 패랭이꽃은 조그마한 고개를 갸웃거리고 듣고잇엇습니다。

멀리서 뛰여온 색기바람이 가는거름을 멈추고 시계를 넌즛이 …



열두시가 훨신지나서 새、참새 한마리가 시계가는 소리를 듣고 감안감안이 조심스럽게 드려다 보앗읍니다。색기참새는 시계를보더니 깜짝놀라서 뒤로 물러낫읍니다。그리고 조고만 눈동자를 … 어머니가 얼마 …

「소리라면 좀 극조기 자미잇을터인데 듣고잇으면 갑갑할란 밤낫 되푸리하고 잇지안소」

「저 아버지! 제비아저씨에게 엿주어보면 어떠켓읍니까?」 색기…

…를 데리고 올려면서 집으로 도라가더니 어머니를 모시고 왓읍니다。

참새어머니는 무서운듯이 멀즉어니서 고개를 내밀고 배린저 물간리봉을 쪼아보앗으나 조금도 움직이지 안흐므로 안심하고 갓가히 왓읍니다。어미참새는 암만 고개를 숙으리고 생각하야보아도 도모지 알수가 없으므로 색기참새에게 말하엿읍니다。

「얘! 너 밧께가서 아버지를 오시라고해라。나는 암만 생각하야도 알수가 없으니……」

색기참새는 아버지가 일하고계신 밭으로 날러갓습니다。아버지참새는 색기참새와 함께 급히 날러왓읍니다。아버지참새를 보고 어머니참새가 말하엿읍니다。

「여보、재가 이상스러운것을 보앗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으므로 당신을 오시라고 한것이요」

아버지참새 역시 시계를 쪼아보기도하고 눈을 감기도하고 고개를 기우리기도하고 머리를 소굴어보기도 하면서 몹시 생각하든끝에 겨우 생각난듯이 말하엿읍니다。

「아아! 인제알엇다。이것은 틀림없는 부자이요。세상에는 소리만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부자가 잇다는것을 언제인가 장거리에 갓을때 들은일이 잇엇소。이것이 부자라는것이 부자는 시내는 부자라는것이 … 소리만하고 밥맛하고 일은 아니하는 … 요」

「그러나 소리처고는 좀 우습지 안소」

하고 이상한 얼굴을 하고듣고잇 …

참새가 밤에서 여러게 흘러오로 … 「응ー 그것이 좋다。그것이 좋、당 재비아저씨는 외국까지 갓다 오신 순현하지이시니까 엿주어 보면 곡 아르시어지」 새가 장거리에게서 이러보고오랍니다。

압지를만들어 보십시다

못쓰게된 도화지로

공부하다 쓰다버린 도화지가 만흔것입니다 방학동안 심심하니 압지를 만드러보십시다。

보통종이는 철필로나 붓으로 쓰더라도 퍼지지안토록 풀기(水氣)를 배누를 너허서 빼는것인데 … 사로쫌어저버리는 성질을 가지고 잇는고로 … 물에너허두면 …

그러면 제속에 도화지를 너코 다구 압지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드리겟습니다。

먼저 세수대야에 새물을 붓고 그속에 도화지를 집어너허두엇다가 열시간후에 꺼내서 … [illegible]

아ー 참시원해조타!

어린이新聞

용감한소년병

그동상을 세우게 되엇습니다。

[런던發同盟合同] 영국 소학생의하때가 이여름방학을 이용하야 남쪽 불란서에가서 독일의 나치스군대에게 에독하게 미움을받고 쪼껴나와서 쓸쓸하게지내는 독일사람들을 위로해주기로되엇다 하는데 한번이계획이 발표되자 어린이에의한 국제평화(國際平和)와 사랑의섬세표적이라고하야 런던에서는 누구나 대단히칭송을하고 잇다합니다。

그런데 그 위문여행(慰問旅行)을 꾸며낸사람가운데의 한사람인 국민평화회의 대표자는 다음과 이 말하엿습니다。

「국제연맹(國際聯盟)은 독일에서 쪼껴난사람에대하야 전체의 용서야하다。이번의 영국 어린이들의 위문여행은 아주실제적인 조흔일입니다」

또 영국의유명한 평화운동자(平和運動者) 에디ㅅ스리틀은 여사는 말하기를

「나라와나라사이는 서로양쪽으로 지내서는안됩니다。평화(平和)운동가한다고 입으로만떠드는것은 소용이 없읍니다。우리는 평화를위하야 일활하지안으면안되겟니다。이번에 어린이들이 불란서에가는것도 어린이의 에서 대단히 뜻이깊읍니다」고 말하엿습니다。

(「나치스」는 독일의대동령 히틀러가 거느리는 병정아닌 병정입니다)

쪼껴난사람들을찾어서

英國小學生의獨逸亡命客慰問

[파리發同盟合同] 불란서의군향(軍鄕)이 잇는 「쓰ー론」근처에 제무섭든 세계대전(世界大戰)에 전사(戰死)를한 十三세의 어린이 병정의동상(銅像)을 세우기로 하엿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적、베앙코」인데 그는 그때에 식민지보병제五十八연대(植民地步兵第五十八聯隊)의 가장 어린병정 이엇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병정이되려고 군대에 드러간것이아니고 전쟁이이러나자 몰래 군대를 쫓아나르는 불란서의 제로군대에 너허달라고 졸라서가치 「세솜·바르」라는 곳에 상륙(上陸)하야 여러번 무서운쌈을 하엿섯는데 그때마다 이어린 「비양코」는 용기를내서 싸웟다 합니다 그래서 수만흔 어른 병정들을 감동하게 하엿습니다 그러나 一九一五년 五월八일의 총공격(總攻擊)에 앞장을 서서나가 싸우다 용감한소년은 고만 가엽게도 죽고말은것이엇습니다 아조슬픈이야기 입니다。

夏期手藝講習

第四回

一、會期 八月一日부터十日까지(午前九時ー十二時)
一、會員及會費、女子에限하며 二圓을 前納할것
一、場所 光化門通同技藝院(東亞日報社越便)
一、材料費 一圓以上三圓、申請七月末日까지

主催 朝鮮女子技藝院
後援 東亞日報社學藝部

□科 目□
東洋刺繡、文化刺繡、佛蘭西刺繡、리본刺繡、編物、뜨개질、레ー스、手藝、바느질、其他無數

□講 師□
進明女高 鄭 ? 氏
同技藝院 張善禧氏
同 張玉順氏
同 金愛卿氏

(童話) 미련한가마귀

任元鎬

독수리 한마리가 하늘높이 떠 빙ー빙ー 맴돌다가 목장(牧場)에서 놀고잇는 어린(새끼)양(羊)한마리를 복ー 차가지고 멀리멀리 달러낫습니다。이때 그옆 솔나무우에 앉어잇던 가마귀가 이걸 보고는 대번에 거럭가 치밀엇습니다。

「조놈의 독수리!아주 횡재햇는걸……나두 하나 차다먹어볼까?」

가마귀는 저의힘은 생각지안코 식욕(食慾)에만 정신이 팔리어

「그래 어느놈을 가저가야 하담ー?」

두눈을 똑바루뜨고 이리저리 돌려다니는 양떼를 어놈저놈 모조리 바라보다가 그중에서 제일 살이 토실토실하게 기름이 잘잘 흐르는 탐스러운 양한마리 골러냇습니다。

「옹치!옹치! 조놈조타 조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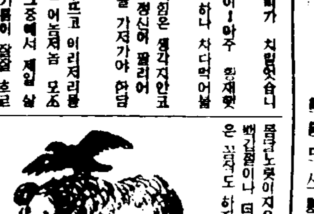
「조 살진놈!」

가마귀는 똑바루 겨누고 쏜살같이 날어내려 두발로 양의 등을 끄안엇습니다。독수리가 하던대로ー。

그런데、그런데、이거야 정말 몸덩이도 못이지요。가마귀보다 몇백갑절이나 더 무게가 묵어운 양은 꼼짝도 하지안코 시실이 늘어진 양의길친머리에 가마귀두 발목이 얽혀서 「까악!까악!」 아무리 발버둥을 치며 하여야 한번얽힌 발목은 어내 풀려지질 안엇습니다。양의 목에가 꺼꾸루 매달려 주루룩 주루룩、용쓰며 기쓰며 주루룩 주루룩 이때 저ー건너편에서 목장지기(양치기)가 두팔을 벌리고 달려오더니

「예、여거 이게 왼떡이냐、우리에 기적날뛰어 하나……」

목장지기는 장물을 조하러고 가마귀를 산채로 부들어 구러(망태)에다 담어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렷습니다。(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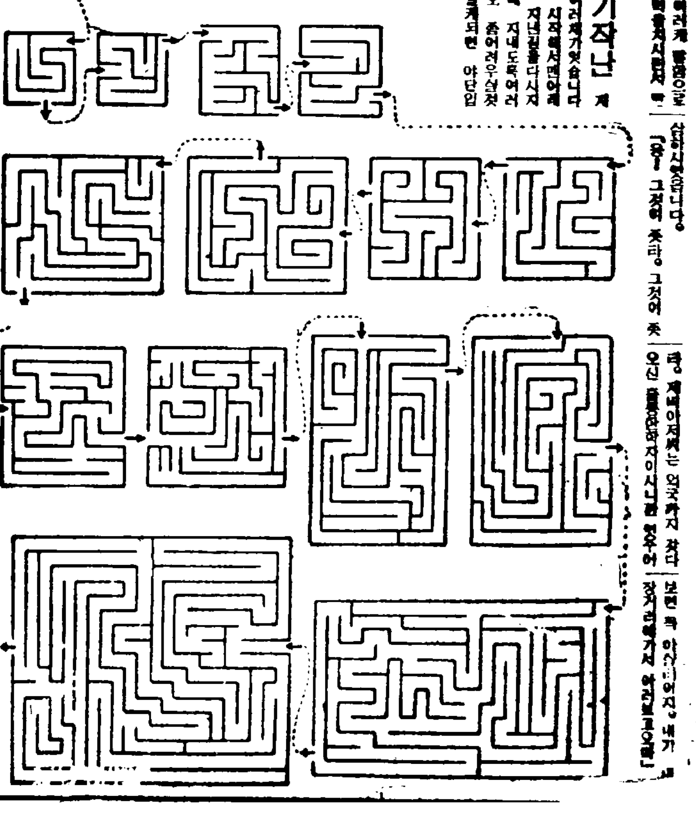
우리동쇠 ー못난쥐ー

이구조

중대마리 꽃대머리
종놈의 송내쟁이
찔가에나 가거ー라
우리집에 왜오니?
목탁딱딱 뛰다리랴
쌀한오름 주께니
소꿉쟁이 쌀풀쟁이
독롭의 쥐꼬쟁이
우리집에 왓다봐ー
쌀한줌두 안줄걸!
부뚜막에 기여와서
떼까기나 주어먹어。

집지내기작난

여기집이 여러채가잇습니다 배우에 집부터 시작해서 면에서 끝까지 한번도 지난길을 다시지내지말고 단번에 지내도록 여러분 시험해보십시오 좀어려우실것이지마는 길을알게되면 아단입니다。



오디라

七月廿七日(土曜)

어린이와家庭의밤

▼六時三十分 童話 모주라이와 여호 鄭 ? 俊
▼六時五十分 兒童週間新聞
▼八時 講話 開城士(?)(一) 松都高普 李 ? 根
▼八時三十分 兒童劇 少年西遊記 全二景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
▼九時五分 明笛獨奏 (一)아츰 (二)오빠생각 (三)荒城의달 (四)言友 (五)夜想曲 鄭 ? ?
▼九時二十分 맘맘돌내 石 泉 피아노伴奏 金 吉 洪
▼九時三十分 獨唱과피아노獨奏 (一)獨唱 故鄕에게 (二)피아노 발스 (三)獨唱 [illegible] (四)피아노前奏曲 (五)獨唱 [illegible] 獨唱 李 相 ? 피아노伴奏 金 今 順

七月二十八日(日曜)

▼午後零時五十分 流行歌 (레코ー드音樂)
▼一時二十分 (大)吹奏樂 (一)行進曲 (二)波瀾風舞曲 (三)序曲「바드링드」 大阪市音樂隊
▼二時十分 앗코ー디온獨奏(一) [illegible]

▼零時五分 [illegible]
▼六時三十分 아코ー디온獨奏 金 文 ?
▼六時五十五分 [illegible]
▼八時 [illegible]
▼八時三十分 [illegible]
▼九時十分 [illegible]
▼九時三十分 [illegible]

第一放送 (廿八日)
[illegible]

오디라 極東無線商會 [illegible] 電話光化二七四二

阿片二千兩不納이면 放火後全部銃殺
마적단들의 가혹한착취법
長白同胞村마다 脅迫狀

【혜산】 백두산일대 김일성일파에 소굴을 정하고 수백 수천명이 횡거하여 인간을 인지못하여다 온을 덥어먹는 악삭한 직을 자정 마적단!

그들은 여름이면 산중으로들어 왓다가 상인, 방화를 마구하고 하거니와 지난二十三일에는 장백현(長白縣)一대 각도구(各道溝) 각촌락에는 패왕(牌王)구장(區長)에게 격문이왓다는데 그내용인즉

「이동리에서 아편(阿片)二천량을바치라 만일 바치지안는때는 너의동리는 불을노코 전부 수사하리이다」

이러케 무서운 격문이 오고보니 동포들이 실은이 편도 그들은 (온 마적의손으로 들어가고야말것이라한다.

동포들은 아편 매매(賣買)하는것을 주어야하고 마적단에 주어야하니 파인부역으로 살어갈것인가 고 一방은 우수에 싸혓다고하며 더구나 장백전현을 통하여 수만원이 차와 아편이 마적단에 들어가아야 형편이라하니 실로피해는 막대하다고한다.

官房子區區長談 이마적단사건에 관방자 최구장을 만나 무르니

「우리동리에는 二천량을 바치라는것이 왓습니다. 그래서 현공서(縣公署)에 사정을 말하고 관병을 파견해달라고햇드니 보내지 안켓다고합니다. 그러니 어찌 하니까 안주사니 그곳에서 살수 없고……우리동리에서는 이회를 열고 매호에 얼마씩배당하야수가 로사정햇읍니다」 운운

郡下仙面과 상사면(上山面)전탄강(新灘江)과 그지류 원룡천(元龍川)강안일대가 범남하야 이사자 一명을 내이고 침수가옥 四十 ... 인가라고한다.

公、民營의岐路에섯든 大邱瓦斯公營決定
二十三만원 기채도 승인되어 殘餘問題는 最後決裁뿐

【대구】 부영이냐? 민영이냐? 하든 양론을 가로노코 오랫동안 암투관계속에 오든중 일부사봉의 새로 예의하 비영파로 예선들 각관계당국에 비밀리 진정(陳情)하는등 부민의의사에 배치되는 행동을하야 쌔로되사 전一만부민은 단연궐기하야 비영운동을 타도하고 일반공영운동에 매진하야 부회결의로 수차나 부의회를 공쇄하야 대부사가 가평게 예정하든바 가세면으로 깨결될 여론바 부산하든 이 문제도 마째는 거의해결되어 다행이 체신(遞信)국과 승인과 방세보수사제로 아매 부당한의 양해까지 맛든대 다만정무총감의 결재가 마결외 부채보되어잇는바 늣어도금월중에는 모든해결을 보리라 한다.

咸南豪雨被害

【함흥】 지난十一일부터 十四일까지 강일간과 二十二일부터 二十四일까지 전후 四일간 함남각지에 폭우가 쏘다저 도로등에 피해를 남겨놋고 사라젓다 한바 그중에도 고원군 하발면(高原郡下발면)에서는 ... 피해를 ... 복구 ... 기를 바란다고 한다.

여호 도로파손 十一처소 표류주락二개소를 내엿는바 이외에도 답 五백여정보와 전 백四十여정보가 침수된것으로 손해액은 五천六백여원에 달하리라 한다.

元山便局增築

【원산】 원산(元山)에서는 경성(京城)의 자동식교환국(自動式交換機)의 완성과동시에 경성에서 사용하던 공전식(共電式)교환기를 원산에 나 설치하다는 이미 본보에 보도되어 일반은주목하든바 원산우편국(元山郵便局)에서는 금년내로 공전식교환기를 설치하고저 청사의 증축공사의 설계를급히 하고잇던바 ...

安州高普에 寄附金遝至
累計卄八萬圓

【안주】 안주고보의 기성을 위하야 최근 二十三일까지 기부신청을 승락한 인사와 금액은 다음과 갈다고 한다.

▲方○○ 千圓▲金鏞○ 七百圓▲金○○ 四百圓▲○川○ 百五十圓▲金○○ 百圓▲金○○ 百圓▲○○ 二十圓▲○○ 百圓▲累計二十八萬五千四百五圓

全、慶南連結의 蟾津江大橋
卄四日盛大한落成式

【광주】 전남과 경남을 연결하는 섬진강교(蟾津江橋)를 三개년계속사업으로 三十만원 공사비를 들여서 가교중이라함은 본지에 기보하엿거니와 지난二十四일에는 전남 경남 양도당국자가 한곳에 보여서 성대한 준공식을 거행하엿다는데 그다리는 길이 三백六十미돌이며 폭이 六미돌의 장한 공사물이라고 한다.

少年斥候隊野營

【진남포】 진남포소년척후대(鎭南浦少年斥候隊)에서는 소년의 심신을 단련할목적으로 서조선 소년야영대회(西朝鮮少年野營大會)를 오는 八월五일부터 五일간 우산오천대(牛山玉泉臺)에서개최하리라는 데 이에 뜻잇는이는 만히 참가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舞踊과音樂의밤
八月二日群山서

【군산】 조선무용계의 명성조택원군을 초빙하야 군산보육회를 와 중앙군산지국과 본보군산지국후원하에 오는八월二일 오후八시반부터 군산공회당에서 무용과음악을 개최하기로되엇는바 특히 할것은 본보와 중앙일보 독자를 동상점고객에게는 우대권을 배부한다는것이며 진정한 예술의길을 개척하는 무용가인만큼 벌서부터대인기라고한다.

金剛記盟大會

【평강】 금강기자연맹(金剛記者聯盟)제三회정기총회는 지난十八일 오후세시부터 철원공회당(鐵原公會堂)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엇는데 회순수정 임원개선등 중요의안을결의하고무사폐회하얏는데 동연맹사업으로 오는八월十五일금강산탐승단을모집하기로하고 다음번총회는내금강여전 금강각(金剛閣)에서열기로결의하엿다.(사진은기념촬영)

居昌大火罹災民에 救護金千餘圓
각지에서답지한금품을분배
焦土우에핀同情의꽃

【거창】 기보=경남거창군 주상면 도평리(居昌郡主尙面道坪里)에서는 지난三월十四일에 아름의 불식난으로 동리一백三十五호중 七十二호가 전소되는바람에 의복가지를 건지지못한재민三백여명의 그간생활의곤경은 복잡인견인데 그후지금까지 주택을 이루지못하야 四방으로 걸식방황하는재민을위하야 도변(道邊)보조二백五十원을 위시하야 면내유지의금품이 답지하는동시에 동경(東京) 대판(大阪)등지에잇는 동포들과 기타각처에서 자발적으로 동정금이 一천여원에 달하야 三백여재민에게 공평히 분배중이라한다.

四十萬圓工事費로
每日千名人夫使役
惠山線最終工區着手

【혜산】 백무선(白茂線)으로 들어가는 혜산선철도는 마지막 공구(十四工區)인 오시천과 혜산간(五是川惠山間)은 四十만七천三백원으로 대창토목회사(大倉土木會社)에 낙찰되엇다하은 기보하바어니와 지난廿四일부터 공사를 시수하엿다는데 노동자를 매일천명씩 사역하리라하며 준공기는 내년十一월발일까지라고한다.

十四공구는 오는九월四일에 착공하리라하며 소화十二년十一월十五일에 준공하리라 한다.

갑산군 운흥면과 혜산진一대에서는 철도공사바람에 요즘만은 서부터 이리저리 몰려다니며방황하다고한다.

萬城幼園新築

【만성】 안주군 대이면(安州郡大尼面)만성교회(萬城敎會)경영인 만성유치원(萬城幼稚園)은 원사가 협착할뿐만 아니라 그 건축의 구조가 불완전하야 불편이 적지안허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든 원장 김원식(金元植)씨의 열렬한 노력으로 동리 유지인 홍성오(洪聖五) 장세근(張世根) 홍순오(洪順五)三인은 성의를다하야 一일간 먹을 양식을 주고 끝까지 수재민을 보호하엿다 한다.

水災民食糧提供

【안악】 지난 二十三일 홍수로(洪水)로 안악군 용순면 유설리 호수(安岳郡龍順面柳雪里湖水)에 제방(堤防)이 터저서 四十호가 전부 침몰되고 그중 六、七호는 파괴되어을뿐만 아니라 먹을 식량이 없어 곤경에 잇는것을보고 동리 진흥회장 ...

保敬幼稚園後援會組織

【이천】 강원도 이천군 낙양면(伊川郡樂壤面) 보경유치원(保敬幼稚園)은 미국선교부의 보조금으로 경영해오든바 금년一월부터 그보조금이 갑작이 끈치게되자 동원당무자들은 유지방침에 대하야 극력애를 써오든바 지난十八일 이디로(李德九)씨집에서 하부형과 유지들이모여 보경유치원유지회(保敬幼稚園維持會)를 조직하고 동회에서 경영하기로 가결되엿다는바 이날 당선된역원은 다음과같다한다.

會長方延植 副會長李鶴九 總務李德九 書記金柱 評議員 ...

迎日漁資貸付

【포항】 영일어업조합(迎日漁業組合)의 어업자금대부총액은 九만七천三백여원인데 그 내역(內譯)을 본다면 시규대부(新規貸付)一만七천원 소어업자대부(小漁業資金)대부는 三천원에 불과하고 기타 대부는 대어업자인 정치(定置)어업대부이라는데 근면 정치어업의 부진으로 대부가 회수성적이 불량하야하다는바 조합의 대다수인 소어민에게는 어업자금을 대부치안하고 조합의 힘을 다지안어도 어업을 할수있는 정치어업자들에게만 다액을 대부하고 회수도 하지못하는것은 어업조합의 근본취지에 어그러진다하야 一반 조합원들은 불평이 만타고 한다.

大平壤建設前提로
電氣供給區擴張
卅萬圓計上하야着工

【평양】 인구五十만을목표로하는 평양대도시(平壤大都市)계획의 전제로서 평양부의 행정구역(行政區域)은사차확장될터인바 이에따라 전기의공급구역도 넓히고저 부전기과에서는 방금그준비중에 잇다한다.

이사업은 대개명년도에 착수할려로 비용은금년도 예산중에서三十만원을 계상하야 동대원리(東大院里)로부터 대동강(大同江)을거처인흥리(仁興里)에이르기까지의송전선(送電線)을가설하고인흥리에는 변전소를설치하야상고도시로서 발전하는 평양에적응한 전기를 공급하리라 한다.

八歲兒溺死

【겸이포】 一여일이나 계속되는 장마비가 개이고 찌는듯한 무더위를 못이겨 내에서 목욕을하다가 빠저죽은일이 二十六일오후에도겸이포(兼二浦)에잇다 본적을 제주도(濟州島)에 두고현재 황주군 겸이포읍 명정(明町)二十七번지에 잇는 강영춘(姜永春)의二남 칠성(七星)(八)이는 월봉산(月峯山)아래 조그마한 웅덩이에서 목욕하다가 무심히도 물에빠저 죽엇다는데 금년의 첫희생이라 한다.

溺死者續出

【여주】 지난二十四일 오후八시경에 여주군 ... 천(驪州郡城西面花川)에서 二十四세된 정영수(鄭永洙)라는 청년이 이사하엿고 또 二十五일오후一시경에 주내면(州內面)궁리(宮里) 선창에서 강순진(姜順進)이라는 노동자가 이사하엿다 하는바 강순진은 본적을 용인군 내사면고리(內四面古里)에 두고 여주군 이보(李甫)의 집에서 고용살이하는 가공한 사람이라고 한다. 소방대가 출동을하야 二三시간동안 시체수사에 노력중이나 아시 찻지못하엿다 한다.

穀價暴騰으로
細窮民狼狽
群山貧民層生活難
보리한섬에도 二원폭등

【군산】 삼갑의폭등으로 각지에서 모여드는 군산항의 미미곡에서도 쌀값이 폭등하야 일반곡가(穀價)가 올라감을따라 가정만아는 세민층은 생활의위협을 받고잇다 한다.

이제자세한것을 조사하바에 의하면 얼마전에도 갑이 올라서 쌀이 또다시 치난매서 三원씩 폭등하야 현재쌀 一석에 三十二원이고 또한 미스에잇어서 여름철에 유一무二한 조사물인 보리값이 치난매석 二원이상으로 폭등하야 현재一석에 대한값이 十四원이나된다고하야 그러치안어도 그날번어 그날먹는 빈민들은 이미 이와같이 곡가 폭등에 이상이 초래하야 그들의생활은 여지없이 곤난케된다고한다.

陰冷氣候連日繼續으로
咸南今年農作도憂慮
또 냉해를 면치못할가 염려
今後天候如何가注目

【함흥】 지난 十三일부터 나리기 시작한 비는 二十六일에 나갈이 산간지대에 하루갓치 내리고 일시로 반기지안은 소나비만나리고 게하고 十五、六도로 저하된 기온을 나타내 이상한 게솔하여 다가 지난 二十五일과 二十六일에 반가운해가 나타나 三十여도의 높은 기온을 나타내엿다. 수은주는 복송하야 一반농사물의 성장을 조장하기에 맛당하엿으나 저녁부터는 다시 비가 온것이 다시 음냉한 기후가 계속되지안을가 적지안게 염려하게되엿다. 이전에도 냉해가 두려워 성장이 지연된 농작물은 이 더운 기후가 우려되는 서이나 지금까지 성장발육은 사변에비하야 매우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西村農務課長談 오랫동안음습한기온의 계속으로 방금 원동우와 한냉가지의 각종농작물을 착수하는 야도소(夜盜蟲)기타 부각물의 해충을 집해하여 좌에 한 해충의 발생을 어느정도까지 예방 방제할려고 합니다. 그중에도 마령서(馬鈴薯)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것인바 피해가 실로 만흔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음습한 기온이 계속된다면 농작물의 영향은 지대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천괴는 회복되어 농작물의 성장발육을 조장하것입니다 운운

緬粕乾燥場設置되면
四百名車夫失職
清津에서 來十月着工
가족二천여명의 생활이 문제

【청진】 지난번 청진부의원들의 세상에서 제의된 청진정어리가스 관영건조장(鰮締共同乾燥場)문제는 부시영으로 실현하기로 되어 늦어도 九월하순이나 十월초에는 공사에 착수 하리라는데 이공동 건조장이 실현되면 청진부내에 어피기를 대리고잇는 三백六十여우차와 그의 경성(鏡城)나남(羅南)방면에 모여는 우차운반부들의 절대적생명선이 끈허지것이라 한다.

그이유는 건조장이 생기면 종래 수레로 운반하던 어비를 쏘는(?) 운반을 하기 위하야 우차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다는데 四백여명의 가족 二천여명이 생활에 위협을 밧고잇다고 한다.

五郡聯合競技

定平體育會서

【정평】 정평체육회(定平體育會)에서는 함남 정평, 영흥, 고원, 홍원, 함주(?)의 五군연합대항경기를 오는 八월十일 정평공립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리라는데 가마니(?) 경기종목은 육상(陸上)연식야구(軟式野球) 정구(庭球) 축구(蹴球) 농구(籠球) 배구(排球)등이라 한다. 참가할 군은 영흥(永興) 정평 북청(北靑) 홍원(洪原) 정평(定平)五군으로 상당한 인기를 끄리라 한다.

鯊群大襲來
咸南沿岸侵害
住民驅逐方을陳情

맹치를 失해 漁民들이 日당할 피해

【함흥】 함남연해안 어민들은 최근 떼를지어 출몰하는 상어(鯊)의무리ㅡ어무리 로 ... 이 상어의무리는 수만으로 ... 목을 (?) 어민에게 ... 피해가 만타고 도당국에 그구제책을 진정하엿다고한다.

咸南接客業者
抱病一百餘名

【함흥】 함남에서는 도의 접객업자들에 대하야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정병자 西병 환자 七十六명 ... 화류병환자 백五十三명 기타 九十二명 도합 三백二十一명이란 다수에 달하는 성병환자로 그중에 제一만흔것은 화류병 ... 이상을 점하고 잇는것으로 지역 ...

稅額으로본 貧窮相
免稅者全府民의三分一
大都市大邱府의暗黑面

【대구】 대도시의 번화를 자랑하는 대구부의 이면에는 실로 비참한 현상이 잠재하여 잇다.

대구부민의 대세대(大世帶)로 본다면 조선인이 八천二十二호 인데 부민의 다수이고 일본내지인이 四백九十여 기타가 二十七호 합계 八천매 七十九호로 세상되어 호수의 부담한 세액(稅額)이 매 二만원이나 되는데 그중 면세자가 부세액은 겨우 二十九만三천원 외의 ... 보이고 잇다.

이것을 배우평균의 가족 五인씩으로처서 四만여원이 연수입 ...二백五十원이하로 빈곤한 생활을 ... 그보다 더 ... 부담자는 一만 一천四백 七十호 ... 이라고 ... 그외의 ... 하고 ... 도 ... 인 ...

...의 ... 七十호 ... 이 ... 면세자 ... 二천四백二十五호의 반은 ... 인 ... 허가는것이라 한다.

人妻誘引逃走

【영흥】 당지에서 양복점을 경영하는 모씨의 아내와 남편에게 정이들어 남의 남편이라 가정을 파괴 ... 근래 양복점을 경영하든 ... 도 이리로 되라는돈이 버어버리고 ... 함께 종적을 감추어 버린자가 잇다.

그는 본적을 원산(元山)에 두고 ...

安州高普期成會總會

【안주】 지난二十二일 오후八시에 안주공립보통학교(安州公立普通學校)교실에서 제一회 총회를 백상규(白象圭)씨 사회하에 개최하엿는데 부의장 이광(李光)씨의 개회사로 ... 하야 ... 부의원이 ... 에 ... 답하엿으며 ... 경과보고와 ... 기지(?) 어러가지 ... 을 하고 ... 하엿다.

구름을잡으려고 (149)

作 朱耀燮　畵 李靑駒

방향(一)

불이서는 로쓰엘스 거리로나려서 중국인 상회에 나에 소화제라는 뗏쎄(?)울 부처파는 숍을 두 병사들고 그아래잇는 조고마한중국인 이서점으로 들어갓다.

우선 순식이는 담배를 한대피여물엇다. 연초가 아니라 동근 담배하대!그것을 피여서 두손가락새에 끼우고 한번 이슥로 휘젓다 아 이집에 마치도 김서이 배만장자나된것처럼 어째 가슴이 벅차엿다.

순순한 양키고에 전신으로 평그로 도는것을 감각할때 순식이는 퍽 유쾌해졋다.

「아, 이것이 세상이라는게 그래……」

하고 무엇이라고 하비방 떠들어 보고 ... 부모의 ... 하는 ... 두손을 떠벌리고 서잇다. 그두손은 필요헐를 주렁고 잇엇다.

「우 무허 보내시구려」 신변만해두 저여자들 ... 한번 보려무는 배원이나 차 ... 가야 멋쟁다 누나고 이식점에게가 주고 ... 거리다 말고 얄하엿다.

「무어? 대관절 누군데?」

「왜, 하때는 상항이나 로쓰엘스 ... 차이나타운의 꽃이랍니다. 지금은 조금이 되엿지만」

차이나타운의 꽃!

순식이는 흥심하야서 다시하번 그괴물을 자세히 바라다보앗다. 뭇신하는 장대, 붉꽃갑이 빨간 뭇가슴, 죽색거리는 천대, 피빗갑이 빨간 무장, 이런것들이 순일이엿다.

「아버 보냐!」 하고 순식이를 옷뎅 그우스소리—

「어서 한근잇소!」 하는 그 목소리는 거치고 거칠고 떨리엇다.

아니다. 그것을 믿을수 없는 일이엇다.

세상은 아러케 변하는것인가?

「한국 저선 하오」

비리는가 마주내 오천짜리 한잎을 땅에던져 주엇다.

「고맙습니다!」

순식이는 다시 그괴물을 넘용키가 나지안엇다. 순식이는 자기손을 내려다 보앗다.

자기손도 푸들들을 떨고 잇엇다.

「요……」 하고 순식이는 신통스리를 빨앗엇다. 그리고 자에 가득히 마려있는 넝고수둠한 술을 한숨에 쭉 들이켯다.

「아. 추타」 하고 그는 억저로 소리를 지르엇다.

보려구 시사하는데 「한봇중도」하는 웨치는 여자의 목소리가 바로 목덜미뒤에서 낫다. 거리에는 보기에도 끔찍하진 음한 동양여자 하나이 서서 ■■ 반만남은 숏, 해빛갑은 숏을 짝벌리고 서잇는 것이엇다. 얼굴은 마치 고자리먹은 잣워처럼 되어서 여기저기 숭숭구멍 뚤어졋이 부엇인지아 아 다수없고 목에 ... 가 ... 바 ... 시에 ... 그것고 디러운 꽃이엇다. 이광경

「한국 저선 하오」

森永 チウインガム

「에—머니나 이게머야? 저리가!」

「한푼적선 하쇼」

「대관절 이게 무어야?」

「한푼만 하쇼, 우리죽겟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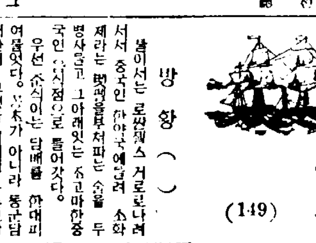
아모것도 못먹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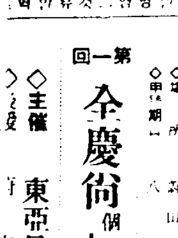
「저 저리나가! 손님들한테 대게시리 하고 보비가 중얼말로 소리를 지른다. 그러나 이괴물은 꿈적도 아니하고 서서 헤쳐같은

第一回 全慶尙個人庭球大會

◇日時 八月四日(日大雨延)
◇場所 釜山小學校コート
◇申込期日 八月三日
◇主催 東亞日報社蔚山文局
◇後援 ...

三木ピアノ オルガン 洋樂器 各種蓄音機 レコード
鮮一樂器店
京城鍾路二丁目(韓靑빌딩)
電話光化門五七七番
振替京城一七五八七番





藏相 公債政策聲明과 政黨及各方面의 批評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政友會

民政黨

貴族院

國民同盟

海軍當局

陸軍側의 態度 — 必要限度는 어디까지 要求

다이나마이트製造 大工場設置決定

鴨綠江水電과 鯨油를原料로 平時는鑛山用火藥製造

[illegible]

새면트統制는 朝鮮需給考慮

【東京電話同盟】 [illegible]

京城四團聯合 運輸改善兼協議

新銀行法案 米上院을通過

殖産契令 八月中旬公布 今年度六十稧設置

米日爲替弱保

英國·銀行總裁決定

產業統制 委員會原案承認

銀行側警戒 自由積取

米穀統制 委員會卅日開催

伊太利軍人 日本麥酒歡迎

財界瑣信

株式

賣냐?買냐? 單需株의再注目

(土曜 株評)

[illegible]

今日의市況 七月廿七日

株式(單位十錢)	正米(三等單位)	[illegible]
期米(單位錢)	商品(單位十錢)	[illegible]
正租	[illegible]	[illegible]

時勢와市況

漸狀나 下支 前場不勢

內外金銀時勢 (七月廿七日)

海外金銀

東京金銀

京城金銀

[illegible]

現實問題一瞥

變方이考慮할

東京短期取引

低含推移 — 東方으로는米 錄의淸算時代

後場休會

財·海·餘·波

朝取短期前場步調

期米 商狀 小弛 — 前場軟調

後場浮動

換買條件으로 八月에大量拂下

米豆餘量

小笠島附近 颱風動向注目

正米 各地商況

京城靜肅

仁川同調

群山小甘

釜山保合

大邱不變

木浦不動

南浦强含

策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二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各地株式

期米

大豆

正米

海外經濟·金融及商品市況

海外經濟

金融

商品

[illegible]